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듦으로써 성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만 1년이 되어가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의 기본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감안하면 성막이 완성된 후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이 제사법에 대한 설명은 내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에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고 제자장들의 옷을 지으며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막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성경은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12:50 말씀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신다'는 의미는 '눈으로 보다' '인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는 "I know that his command leads to eternal life"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라고 번역하였고 새번역 성경은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인간이 순종이라는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책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한 서술문입니다. 책을 가리키며 "이것은 책입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 말에 동의하시겠지만, 만일 제가 창문을 가리키며 "이것은 책입니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이 책에 써있는 대로 따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서술문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따르라는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있든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따르라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책상에게 명령하여 "이 책에 써있는 대로 따르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상은 제 명령을 알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의지와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제 책상에게 명령을 내려도 그것은 명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따를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말할 때에 만이 비로서 제 말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명령에든지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의지와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될 결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하였을 때 얻을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선

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매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 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원래의 본성인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죽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며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와 본 모습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분의 말씀만이 내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분의 백성이자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이 절대 선이며 절대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절대 선이며 절대 진리인 그 분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분의 말씀을 믿는 것에 더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4:10)"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반응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반응이요 '다른 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6:13-14 말씀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24:14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으로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창26:5)"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 때 방주로 구원을 얻은 노아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6:2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다 행하셨고(요4:34),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2:8).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신11: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14:15)"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6)"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 성막은 세워지고 성전과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막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실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참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